

## News

### '기대반 우려반'...5일부터 마이데이터 시대 열린다

서울경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부터 전면 시행… 금융위, 5일 오후 4시부터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으로 서비스 시작한다고 발표

본 허가를 획득한 54곳 중 나머지 21곳은 상반기 중 참여 예정… 은행권은 주거래은행 지위 직결되어 사활걸고 경쟁 준비… 스크린 스크래핑 금지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

### 새해 빗장 풀리니… 토뱅은 신용대출, 카뱅은 주담대로 승부수

머니S

인터넷전문은행들, 새해 가계대출 빗장 열리면서 대출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 토스뱅크 1일부터 대출 영업 재개, 카뱅 주담대와 기업대출로 눈길  
토스뱅크, 개인별 DSR 규제 2단계 적용하지 않아 신용대출 한도가 많이 나온다는 평가… 카뱅, 주담대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상 기업대출 시장에도 진출 예정

### 규제 빼줘도 외면받는 중저신용자 대출… 은행들 올해는 늘릴까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 중저신용자 대출 늘릴 가능성 높지 않다는 지적 존재… 단 한 곳도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하지 않아…

위험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 중저신용자 대출이 아니어도 금리 상승기 여신 수신이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굳이 부실채권 위험을 떠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

### 2단계 실험 돌입하는 CBDC… 은행권 블록체인 기술 활용 쟁글음

조선비즈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2단계에 돌입… 은행들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 신사업 발굴 중…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  
제도권 내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이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하고 서비스 개발하는 중

### “높아지는 손해율 막아라”… AI 도입하는 보험사들

조선비즈

보험사들, AI 기반 디지털 기술 활용해서 보험금 누수에 대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곳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누적 손실액이 점차 커지는 추세…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최근 3년간 적자 기록 중… AI 활용해 부당 및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 근절 목적

### 노후실손보험료, 또 올랐다… 가입자 이탈 현실화?

머니S

보험사들,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노후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15~19% 사이 수준으로 인상… 당국은 가입 건수가 작다는 이유로 인상률을 각자 자율에 맡겨…

보험료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20~30% 낮은 편이지만 자기부담금이 30%로 높아 수요 외연… 보험사 입장에서도 높은 손해율 우려해 판매에 소극적

### 막 오른 마이데이터… 증권사 '춘추전국시대' 열릴까

머니S

기존 키움, 하나금투, NH투자, 미래에셋 4곳에 이어 한국투자, KB 또한 합류 예정… 신한금투, 현대차, 교보는 예비허가 단계 상태

다만 일각에서는 증권사별 서비스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차별성 내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초기 시장 선점 경쟁이 중요

### '수수료 면제에 현금지급까지'…증권사, 서학개미 잡기 '총력전'

아이뉴스24

변동성 장세에 따른 해외주식 개인투자자 고객 잡기에 총력전… 키움, 을 3월 말까지 3개월 간 투자지원금 제공 등 이벤트 진행

한화, 대신, 교보 증권도 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들 대상 이벤트 시작… 지난해 11월 기준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약 121조 8,359억원 기록…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이벤트 기획 예정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